

반도체 수급난에 기아·현대차 3분기 생산 ↓

전년동분기대비 기아 6.5%·현대차 15.8% 감소

신차 출고 지연...완성차업체 생산량 13년만 최저

기아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생산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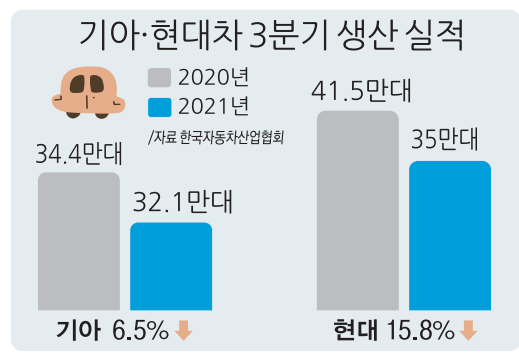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는 총 76만1천975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3분기(92만1천583대)에 비해 20.9% 줄었다.

이는 매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지난 2008

년(76만121대) 이후 13년만의 최저치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1·2분기 각각 지난해보다 늘어난 90만8천848대와 90만5천699대를 생산하며 비교적 잘 버텼지만 올해 하반기 동남아시아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80만대 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초 9-10월이면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독일 인피니온과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밀집한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 국가들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록다운'(봉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친 터라 반도체 부족 사태는 좀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아는 올해 3분기 총 32만1천734대를 생산, 지난해(34만4천212대)보다 생산량이 6.5% 감소했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이틀간 휴업한 바 있다.

현대차는 3분기에 35만209대를 생산해 지난해 같은 기간(41만5천992대)에 비해 15.8% 줄었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지난달 총 5일간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울산4공장의 팰리세이드 등 일부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했다.

아산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4주간 휴업을 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신차 출고 지연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이틀간 휴업한 바 있다.

현대차는 3분기에 35만209대를 생산해 지난해 같은 기간(41만5천992대)에 비해 15.8% 줄었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지난달 총 5일간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울산4공장의 팰리세이드 등 일부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했다.

아산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4주간 휴업을 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신차 출고 지연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은 출고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기아의 경우 인기 모델인 카니발은 출고까지 6-7개월이 걸리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최장 11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분기로 알려진 제네시스 G90과 기아 니로 신형의 출시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GM과 쌍용차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일찌감치 감산에 들어간 한국GM은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10만2천747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5천939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는 2만499대를 생산하는 데 그쳐 지난해(2만6천164대)보다 생산량이 21.7%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수급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3분기(3만1천537대)에 비해 오히려 7.0% 증가한 3만3천760대를 생산했다.

기수회기자

10대 이하 미성년자 주택구입 '급증'

2019년 332건서 올해 8월 946건...3배 가까이 증가 김희재 의원 "만10세 미만 59.8% 증여로 자금 마련"

최근 3년 사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재 의원(더불어

어민주당·여수율)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천6건, 거래금액은 총 3천54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2019년부터 주택매매거래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다만 10대 이하(1-19세) 현황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20대 이하(1-29세)에 포함시켜 공개한다.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

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거래 건수는 작년의 1.3배, 제작년의 2.8배에 달한다.

1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금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천354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549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을 뛰어넘었다.

20대 이하로 연령대를 넓혀서 보면 이들의 주택 거래는 2019년 3만5천270건에서 지난해 6만1천91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만4천62건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이하 주택 거래 금액은 2019년 7조7천994원에서 지난해 15조6천479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1조7천48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 증여로 주택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프리미엄 브랜드 완벽하게 다르다!

1군 명품 브랜드가 월산동에 선보입니다

광주 최중심, 빛나는 가치의 중심에서 남구를 대표할 프리미엄이 탄생합니다

월산 시그니처 더 뷰

학교는 가깝게! 출퇴근 편리하게! 생활은 여유롭게! 미래를 담은 월산 시그니처 더 뷰

- 누구나 가입 가능
- 내 집 마련의 기회
- 주택 청약통장 무
- 85㎡이하 주택보유가능
- 저렴한 약정금
- 계약시 보증서 제공

총 514세대(예정) | 84㎡ A, B
1군 명품 브랜드 아파트
월산에 프리미엄을 누리라!

062) 362-8300

GRAND OPEN



"나들이 갈 때 간편 먹거리 준비하세요" 롯데마트가 단풍철을 맞아 구이부터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까지 다양한 '가을캠핑 추천 먹거리' 행사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에서 간편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제공)

광주은행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최우수상 수상

광주고용청 주관...패밀리레이 등 높은 점수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고용청 주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일·생활 균형을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광주은행은 공모전에서 '패밀리레이'와 'PC-오피' 제도를 도입해 정식 출퇴근과 업무 효율화를 꾀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9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회식 문화를 조성하고 체중감량이나 금연성공 시 축하금을 주는 건강증진제도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인 점도 인정됐다.



광주은행은 시상금을 영양사와 조리장 등 본점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직원의 워라밸과 행복 추구는 물론 지역 경제 성장과 근로 복지의 핵심적 가치"라며 "광주은행만의 자랑스러운 기업문화가 업무 효율 제고와 함께 지역 기업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활성화 캠페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이상현·이하 공제회)는 18일부터 오는 11월17일까지 호남·제주권 건설사업장 91개소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하루로 전자카드'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켜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수단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은 공제회로 전송되며 근로자가 건설사업장의 근로내역 축소신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호남권(제주 포함) 1만1천여 개 건설공사현장 중 광주·전남 72곳, 전북 26곳, 제주 12곳에서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 중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공 발주 공사, 300억원 이상의 민간 발주 공사는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상현 광주지사는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이행 활성화 캠페인 운영으로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색이와 문종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열기는 꼭 필요한 시간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